



# 환경중독 방지를 위한 확대개념

인간에 관한 종합적 건강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들이 처해있는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에 관한 것에 한정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생활의 실태와 가정내에 있어서의 생활향상이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것에 비중을 높여서 다루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은 근로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역사성과 풍토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에 있어서의 근로생활 산업장의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퇴근후의 생활환경을 합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인간이 생활하고 지내는데 있어서 실내, 옥외, 작업장, 그리고 집단이 모이는 집합장소별로 각각 분리된 별도의 환경요인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고, 노동하고 휴양하는 등 모든 장소에 있어서의 집적된 환경오염총량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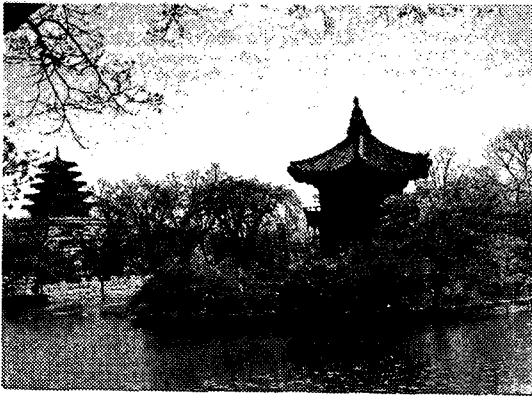
요즈음에 와서는 공장의 환경이 정비되어 가고 개선되어서 급격하고 현저한 산업중독의 병태를 이르는 것은 감축되어가고 있는 바 그대신 미량의 유해물질의 장기폭로에 의한 건강장해 양상이 문제시되며 이것을 검토할 때에는 24시간 생활을 통해서 조우하는 유해인자에 의한 영향의 누적을 감안하는 “환경중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단일물질뿐만 아니라 저농도의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이 혼재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건강영향평가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전체를 통한 유해인자와 각각의 폭로량에 대한 상세

문영한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수

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더우기 미량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흡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 독성에 대한 생체반응은 개인의 기질적, 기능적 건강상태 여하에 따라 생체반응이나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보건의 역사는 사회경제의 사정과 산업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변천되어 왔는데 산업기술의 개진 이후 산업계는 그의 원료의 사용이나 작업공정의 기술개발에 있어서 큰 변화가 거듭되었고 대상근로자의 고령화현상과 사회조직 기구의 변화가 가중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내용도 이에 순응해서 재검토되고 개선되어야 되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 산업중독의 문제는 산업장환경뿐만 아니라 이외의 잠재성 이상상태의 발생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중독학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연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산업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새로이 비중을 높여서 생각할 제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후레드릭 · 테일러 (Fredrick W. Taylor)가 새로이 테일러리즘 (Taylorism)을 주장하여 선풍적인 적용확대를 가져온 바 있었는데 그것은 노동을 하는데 있어 시계를 가지고 동작 하나 하나를 철저히 분석 관찰하여 기록하여 한치의 노동력의 낭비도 없이 과학적으로 일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가

진 것인데 여기에는 자율적인 동기부여의 기여와 축적되는 산업피로를 고려할때 이것이 능률적인 것이 되는지를 평가하는데 결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육체적 중노동은 대폭 경감되고 기계화가 되고 정신노동이 증가되고 향상되고 복잡해진 기계조작과 공정을 위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근로자의 증가나 취업연령의 고령화 및 기혼여성근로자의 증가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실내오염문제의 증대, 제3차 사업의 비중증대 등등에 따르는 새로운 문제제기와 적절한 해결책의 강구 등 업무범위가 다양화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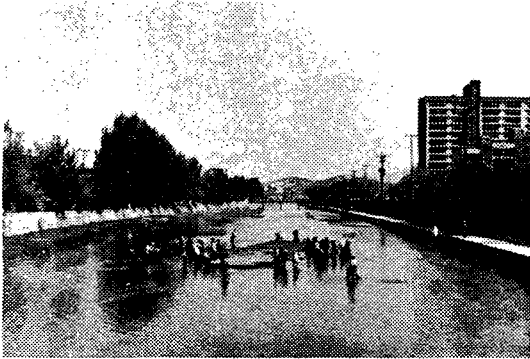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산업의 기계화와 생산속도의 상승이나 과도한 규제와 원가절감 운동에 따르는 경영방침하에서 여유없고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정신신경성 노동의 증대와 스트레스의 축적은 노동의 우심한 단조성에 수반하는 퇴출감과 인간소외성, 불규칙한 근무양상의 확대에 따르는 생활 리듬의 파탄, 작업방법에 따라서 구속이 강요되는 작업자세의 지속적 반복동작의 강요, 시스템성 재해에 따르는 사고에 대량화등은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적응불능의 상태에 몰고 가서 사고에 연결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근로자들의 일상생활면에 눈을 돌려보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며 원거리 출퇴근 문제, 주택의 안락성문제 사회규범의 혼란과 사회경제학적인 부조화에 따르는 상대적빈곤의식문제,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과도한 판정과 처리문제 등은 물인간에 따르는 문제 등은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화될 기미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들은 협소하고 특이적이고 단순한 국한된 문제 해결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작업환경의 경우 산업중독학적인 대책 마련만 가지고는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준과 근로자를 위한 최대허용기준(T.L.V)과는 전자가 일상 생활에 있어서 상시폭로에 비중을 두는 대신에 후자의 경우에 비중을 두는 대신에 후자의 경우는 근로기준에 따르는 일일노동시간(8시간/일)에 기초를 둔 최대 허용기준이기 때문에 그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오염과 같은 지역환경 오염에 있어서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노동환경의 개선을 그대로 적용할수는 없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며 환경에 따라서는 오염물이 발생한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지 않고 광화학적 산성화와 같이 변환된 새로



운 물질이 되며 유해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오염물의 폭로시간도 24시간 즉 상시폭로로 간주하여야 한다.

인구보건학적인 견지에서 지역사회의 인구에는 노인, 영유아, 연소자, 임산부, 환자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은 자가 다수 공존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동시간내의 오염물의 폭로시 적용되는 사항과 다른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즉 지역 환경오염의 경우 건강영향평가는 광범위하게 고찰하여야 한다.

한편 환경중독의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업무 집행과정에서 환경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선별적으로 채택해서 총괄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기술자격고시에 있어서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소음·진동관리 등을 나누어서 국가고시를 치루는데 한가지 과목으로 산업보건학을 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가지 시험과목중의 한 장애나마 이 분야를 삽입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할줄 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껏 인체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산업중독학적인 해석에서부터 환경중독학적인 면으로 해석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것처럼,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검토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유해한 환경성 독성물질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만 환경성 유해물질의 배출원은 바로 산업장이기 때문이다.

즉 공장에서 최종생산물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가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공정과정에 따르는 물질의 변화가 더욱 더 유동성은 지닐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최종생산물질의 취급·운반·보관 등에서 각별한 주의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각별히 산업보건학적인 독성학에 숙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공해에 있어서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그 해결책을 위해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자는 유해작업환경에 노출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시설을 하기 전과후의 성과를 비교 검토하는데 있어서 원료투입에서 부터 공정과정의 구체적인 양상파악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고로 국가기술자격고시를 치루는 환경관리기사들에게 요구하는 필수시험과목 중에 오염관리학의 과목에서나 공정관리를 다루는 과목에 산업보건학적인 지식의 보급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